

평창 동계 올림픽·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담양 대나무박람회

광주 U대회 홍보전략 벤치마킹

전국 순회·SNS·교통거점 옥외매체 활용 등 배워

광주 U대회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된 은·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전략이 타 자치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세계대나무박람회 등에서 광주 U대회의 홍보 기법을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정현·김환식)에 따르면 올림픽 등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위 홍보부는 각종 이벤트 개최를 비롯한 전국순회홍보단 운영, SNS 홍보, 수도권 등 주요 교통거점 내 옥외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D-150일과 D-100일, D-50일, D-30일 등 주요 일정마다 광주와 서울, 부산 등에서 입체적인 대형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반응을 얻었다.

지난 3월 출범한 전국 순회 홍보단은 전국 거점도시를 비롯한 경기장 소재 지자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U대회의 열기를 전국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전국 KTX 역과 공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프로야구·축구 경기장, 국회에 이르기까지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비롯한 대형 현수막, 통천 등을 개첨해 광주 U대회를 전국에 알리고 대회 붐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홍보도 병행했다.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지하철 스크린과 모서리 광고 등 총 2000여곳에서 광주 U대회를 홍보했으며, KTX와 수도권 지하철 130개역 대합실의 디지털 홍보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대학생이 주인공인 축제라는 점에서 착안해 전국 주요 종합대학 100곳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회 개최지인 광주에는 대형 애드벌룬 설치 등을 통해 분위기를 달궜다.

SNS를 통한 홍보는 대회기간 중에도 빛을 발했다. 페이스북 등 광주U대회 8개의 공식 SNS채널을 통해 경기일정과 결과, 일일 하이라이트 영상, 메달소식과 경기장 투어 맵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대회기간 중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온 인원만 400만여명에 이르고 댓글 등으로 게시물에 참여한 인원은 50만 여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대회 공식 마스코트로 큰 인기를 모았던 누리비 인형을 비롯한 기념품, 그리고 각종 인쇄홍보물을 제작해 국내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배포했고, 언론과 방송을 통한 홍보 역시 광주U대회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회 개최 전부터 광주 U대회의 홍보를 진두지휘한 송승중 U대회 홍보부장은 “지역은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가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 듯 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이만구(사진 가운데) 씨가 말레이시아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70대 자원봉사자 이만구 씨 “광주만큼 청정도시 없어”

자원봉사 3만시간 넘는 ‘달인’ 서울서 내려와 U대회 활약

광주 U대회 성공개최의 숨은 주역인 자원봉사자의 활약상이 이어지고 있다.

선수 수송 분야 자원봉사를 맡았던 이만구(71)씨는 고령임에도 3만여 시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광주U대회에서도 톱특히 역할을 해냈다. 이씨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와의 인연으로 이번 광주 U대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씨는 “2002년 한일월드컵 자원봉사를 같이했던 광주가 고향인 분을 우연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다시 만났는데, 광주

U대회의 자원봉사를 제안해 참여하게 됐다”면서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에 이어 U대회에서만 두 번째로 자원봉사를 하는 인연을 맺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이씨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달분 약을 챙겨 광주 U대회 봉사에 나섰다.

그는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 만난 광주 U대회의 첫 느낌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자원봉사를 해왔지만, 광주만큼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를 본 적이 없다”면서 “특히 송정역에서 열주체육관을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광주 U대회의 친절함이

미지까지 더해졌다”며 활짝 웃었다.

이씨는 이번 대회기간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승차차를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이씨의 자원봉사 시간은 3만2560시간에 이른다.

직업군인 출신인 이씨는 자원봉사 4만시간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8월 춘천인형극제, 10월 경북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도 자원봉사를 계획 중이다.

그는 “이번 광주 방문을 계기로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정말 광주는 무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고, 광주U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역소재 만화 10개 문화콘텐츠 지원 작품 선정

광주시는 16일 “2015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45개 작품 중 최종 10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광주지역 소재 기반의 만화 지원 사업을 별도로 공모해 ▲서서령, 우월순, 최홍중 등의 실제 행적을 바탕으로 한 ‘길 위의 길’ ▲김덕령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충장’ ▲무등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 테마 판타지 ‘마운틴스쿨’ ▲어등산, 황룡강, 8경 5미 등을 소재로 도깨비가 주인공인 코믹웹툰 ‘불량도비’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또 체육소녀 파이팅걸즈, 풋볼 이예로, 달랄라 한자, 중장비로봇 다르히가로, 브레드와 밀크, 허그프렌즈 등 애니메이션 5개와 캐릭터 1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작은 각각 1억원 내의 제작지원금과 광주 콘텐츠창업보육센터의 시설·장비를 지원받아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창업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분야 등 지역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및 장비를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전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을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EBS 인기프로그램인 ‘두다다쿵’, ‘우당탕탕 아이쿠’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게임, 만화 등 70여 개 콘텐츠가 제작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재운 신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취임

국민안전처 교육지원과장 역임

제15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에 마재운(51) 소방준감이 취임했다.

마 본부장은 광주진흥고와 조선대 경영대를 거쳐 전남대 경영학 석사를 받은 광주 토박이로 1990년 공직에 들어와 소방방재청 소방과학연구실장, 소방상환실장, 국민안전처 교육지원과장 등을 역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는 첫 사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광주에서 광산소방서장으로 재임했던 마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처 소방준감으로 승진해 다시 광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에 김수아 변호사

정책 개발, 5·18 등 담당

광주시는 인권평화협력관 채용 공모에 최종합격한 김수아(39) 현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8월초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수아 신임 인권평화협력관은 홍콩 대학교 인권법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광주고법과 전주지법 재판연구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간사,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크메르청년협의회(KYA) 상근인턴과 광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최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



연대회의’ 총괄 진행 등 국내외 인권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 인권평화협력관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인권정책 등을 총괄 조정하는 인권평화협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변호사이기 이전에 국제인권운동가로서 9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여성, 종교 소수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 인권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뛰었던 경험을 살려 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유통 수·농산물 방사능 안전”

시 보건환경연구원 재래시장 등 172건 검사

광주지역 수산물과 농산물 등 먹을거리가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삼반기 서부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비롯해 재래시장, 마트 등에 판매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72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많이 찾는 ▲조기, 갈치 등 수산물 85건 ▲가공식품 41건 ▲농산물 35건 ▲축산물 11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수산물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산 고등어와 참치는 6개월 이상 매월 검사해 인근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

산물의 방사능 상태를 확인했다.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대만, 영국에서 수입된 동태, 고등어 등 14건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은 인근 지역의 한빛원전과 관련 방사능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주지역 중 가장 인접한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시 도축장 축산물에 대해 정기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요오드(I)-131과 세슘(Cs)-131, 세슘(Cs)-137, 3개 항목으로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hevi.gwangju.go.kr)에 게시,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김진희 약품화학과장은 “방사능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구입한 최첨단 분석장비로 정밀 검사를 더욱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또 시민 관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